

무섭게 오르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연장 목소리 커진다

전국, 휘발유 1700원 돌파 후 상승세 지속...광주만 1600원대 이달 유류세 인하 종료...물가 안정 등 고려 연말까지 연장 예상

“지금 가장 쌀 때 아닌가요? 내일 더 오르기 전에 꼭 채워야죠.”

15일 오전 1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셀프주유소에서 만난 박모(35)씨는 주유 금액을 선택하는 버튼 중 ‘가득’을 누르면서 “1500원 수준 이던 휘발유 가격이 어느샌가 1700원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기름값 지출이 너무 늘어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푸념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면서 하반기 서민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폭염과 태풍 등으로 채소값이 크게 올라 밥상물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치솟아 민생에 어려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 당 17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광주·전남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02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전보다 3.92원 오른 ℓ 당 1711.33원으로, 광주는 전에 비해 2.87원이 더 오르면서 ℓ 당 1692.80원을 기록 중이다.

광주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15일 ℓ 당 1562.38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130.42원이나 오른 것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휘발유 값이 1700원을 넘어서지 않은 곳은 아직 광주가 유일하지만, 최근 매일 3원 상당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3일 이내 17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유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광주 지역의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전보다 6.48원 오르면서 ℓ 당 1545.09원을 기록, 전남은 1558.62원으로 전 날보다 7.87원이 더 올랐다.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측은 “최근 국제 유가는 미국 EIA의 유가 전망 상황과 주간 석유제품 재고 감소 발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OPEC의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오르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름값이 다시 오르는 데다, 밥상물가가 치솟으면서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휘발유 값이 ℓ 당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관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탄력세를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담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로,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휘발유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무기가 실린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러시아 루블화 급락... 17개월만에 최저 수준

달러당 100루블 넘겨... 당국 “수출 감소 등 교역 조건 악화 탓”
피폐해진 경제 부담 가중... 외부 전문가 “러 당국이 하락 유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넘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1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국제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환율은 한 때 1달러당 100루블 고지를 넘기도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오전 루블화 가치 하락이 수출 감소와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에는 다음날인 15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현재 8.5%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깜짝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금리가 오르면 화폐까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루블화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이후 폭락했다가 러시아 당국의 개입에 힘입어 가치를 회복한 적이 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환전 금지와 외국인 주식 매도 금지, 에너지 기업들의 루블화 보유 의무화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루블화의 수요를 늘려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러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와 함께 고유가 등 러시아 경제에 유리한 주변 환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당 50루블 선까지 오르고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해 루블의 가치는 30% 가까이 급락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러시아보다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튀르키예뿐이다.

러시아 당국은 루블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감소 등 교역 조건 악화를 지목하며 환율이 다시

안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가 상승 등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지출 증가도 루블화 폭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통화량 증가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루블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영국 BBC방송은 보도했다.

컨설팅사인 매크로어드바이저리의 크리스 웨퍼 파트너는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루블화 가치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는 데에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뒀지만, 이제는 정부 지출 균형을 위해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로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웨퍼는 “(루블화 가치 하락은) 위기가 임박했다기 보다는 관리들이 내린 결정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루블화 폭락이 당장 공황으로 이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폐해진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해양에너지, 가스 스마트계량기 보급 시범사업 완료

7월까지 1만6000여대...“하반기 자체 개발 시제품 설치”

해양에너지는 15일 가스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확대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사업은 정부의 도시가스 계량기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와 서울, 경기, 대전 등 10개 지역의 17개 도시가스 공급 기업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정부의 스마트계량기 보급 실증사업에 이어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데, 검침의 정확성과 서비스 안정성, 사용자 만족도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해양에너지는 1차 실증사업(2019년 12월~2022년 12월)에서 계량기 2500대를 보급했으며, 올 7월까지 2차 시범사업분 1만3771대를 추가 보급했다.

AMI는 방문 없이 원격 검침이 가능해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대면 수요에 적합했다.

AMI는 여성·고령고객 등 1인가구 세대의 생활 침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회 대표이사 “AMI 계량기 설치 세대대 대한 누출 감지 상향피약을 위해 가스 AMI 알람특을 추가 등록하며, DATA 수신 상태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자체 개발 AMI 계량기 시제품 실증을 위한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진원 지원 기업 투자 유치 성공

2021년 입주 ‘헤세드릿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5일 광주디지털미디어센터 입주기업인 ‘헤세드릿지’가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헤세드릿지는 2021년 광주디지털미디어센터에 입주, 졸업한 기업으로 웰니스 전문가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 임직원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달램’을 통해 투자 유치가 성공했다.

투자 기업은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캡프)과 (주)두더지프로젝트이며, 투자규모는 비공개이다.

신재욱 헤세드릿지 대표는 “그간 달램이 성장하며 만들어 온 임팩트들이 인정받아 이번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어 기쁘다”며 “계속해서 국내 B2B 웰니스 1등 플랫폼으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주 원장은 “진흥원 지원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자 유치에 이르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진흥원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초기창업부터 투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철근 누락’ LH 임원 ‘꼼수 사퇴’ 눈총

인적 쇄신 내걸며 ‘전원 사퇴’

임기 만료 등 4명만 물러나

LH ‘업무 공백 우려한 차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들의 임기는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LH는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잇달 비판을 자초했으며, 결국 인적 쇄신을 전면 내걸며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지난 11일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사장·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LH의 이번 임원 사퇴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한꺼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으나,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LH의 임원은 이한준 사장을 포함해 7명이다.

이 사장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랐다’며 거취를 임명했고, 현재 공모 중인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의 임원이 이번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제외한 4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연합뉴스



로보락 청소기 만나세요 ▶광주신세계 8층 ‘로보락’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로봇청소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로봇청소기를 체험하고, 신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로보락은 로봇청소기 1세대 브랜드로 세계 약 40개국에 판매 중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상시근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특별지도

고용부, 연말까지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천 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000곳 가운데 1만3000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